

한국3M, 적외선 97% 차단 필름 출시

한국3M은 뛰어난 적외선 차단효과로 여름철 실내온도를 낮춰주는 최고급 단열 필름 3M Prestige Film을 6월21일 출시했다.

일반 고급 단열필름이 세라믹 코팅방법을 사용해 적외선을 차단하는 반면 프레스티지 필름은 3M의 특허기술인 다층 박막기술을 필름에 적용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외선을 97%까지 차단해 여름철 실내온도를 낮추게 된다.

한국3M은 프레스티지 필름이 미국 피부암협회에서 피부암 방지제품으로 선정될 정도로 유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고급 가구의 변색을 막는 기능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한번 시공하면 평생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은 가로·세로 1m 규격을 시공할 때 13만원이다.

<화학저널 2006/06/22>